SBS 사보

사훈
건강한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제1137호 | 2019년 11월 21일(목)

@sbsnow

발행인 SBS **편집** 홍보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전화** 02)2113-3286 **팩스** 02)2113-3359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SBS의 토크쇼 버전 업 되어 돌아오다

토크쇼의 명가 SBS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토크쇼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연출: 소형석, 황성준, 최준호)가 12월 4일(수)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지난 14일(목),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첫 스튜디오 녹화가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배우 이동욱이 단독 호스트, 개그우먼 장도연이 쇼 MC를 맡으며 품격과 재미를 갖춘 신선한 조합으로 기대를 모아온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는 서영도 밴드의 음악과 방청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함께 베일을 벗었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인물을 초대, 집중도 높은 일대일 토크를 지향하는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는 스튜디오 토크를 기본으로, 게스트와 관련된 현장에서의 자연스럽고 리얼한 토크, 코믹한 시추에이션에서의 순발력 있는 토크 등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구성된 혁신적인 토크쇼다.

오래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의 호스트를 꿈꿔왔던 이동욱은 웅장하고 품격 있는 세트에 어울리는 턱시도 차림으로 무대에 등장했다. 자신의 오랜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라며 벅찬 감회로 토크쇼의 문을 연 이동욱은 첫 녹화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여유 있고 위트 있는 진행을 선보이며 방청객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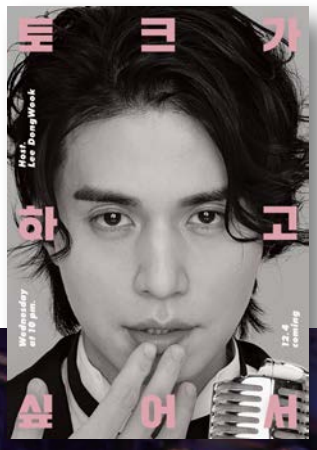
배우 공유가 첫 회 게스트로 등장하면서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처음으로 토크쇼 단독 게스트로 출연한 공유는 때 묻지 않은 청정 예능감을 선보였다.

평소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케미와 놀라운 비주얼을 선보이며 방청객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배우 공유와 인간 공지철로 나뉘어 진행된 토크에서는 데뷔작부터 최근 개봉한 '82년생 김지영'까지, '배우 공유'의 18년간의 필모그래피와 연기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으며, 스포츠와 게임을 좋아하는 '인간 공지철'의 모습도 들을 수 있었다.

소형석 PD는 "이동욱이 많은 해외 토크쇼를 모니터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친한 동료 연기자인 공유를 첫 게스트로 맞아 더욱 철저히 준비했다. 첫 녹화였던 만큼 긴장하는 듯 했으나 오랜만에 토크쇼에 출연한 게스트의 이야기를 편안하면서도 충실히 끌어내, 단독 호스트의 면모를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혁신적인 토크쇼,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시즌 1은 12월 4일(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2부작으로 방송된다.



SBS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Life of Samantha 라이프 오브 사만다 11월 24일 첫 방송

자연 다큐×영화적 서사 구조 = 명품 '시네마틱 자연 다큐' 탄생

SBS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라이프 오브 사만다〉가 11월 24일(일)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라이프 오브 사만다〉팀은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마라 초원에 살고 있는 '싱글맘 치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연 다큐멘터리에 영화적 서사 구조를 더한 '시네마틱 자연 다큐'를 국내 처음으로 시도했다. 2017년 SBS스페셜 〈THE 람쥐〉를 통해 판타지 다큐드라마라는 장르적 실험을 시도했던 주시평 PD 와 제작진이 그 명맥을 이어 시네마틱 자연 다큐 〈라이프 오브 사만다〉를 탄생시켰다.

〈라이프 오브 사만다〉는 배우 김남길이 내레이션을 맡고, 작곡가 김형석이 음악감독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년 만에 TV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맡은 김남길은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목소리로 압도적인 명품 내레이션을 선보였다. 처음 다큐멘터리 OST를 맡았다는 김형석은 류이치 사카모토에 견줄 만한 서정적인 OST로 〈라이프 오브 사만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주시평 PD는 "BBC에도 견줄 만한 자연다큐를 우리만의 시선으로 새롭게 만들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또 "비주얼적인 퀄리티는 BBC를 지향하지만, '맹수의 삶'을 강자로만 인식하는 기존의 시선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새롭게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라이프 오브 사만다〉는 매일이 생존 투쟁인 아프리카에서 홀로 새끼 세 마리를 키우며 끈질기게 버티고 살아가는 싱글맘 사만다의 삶을 통해 녹록지 않은 현실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SBS 창사특집 〈라이프 오브 사만다〉는 11월 24일(일) 밤 11시 5분 1부 프리퀄 'Jambo Africa!', 11월 29일(금) 밤 10시 2부 'Life is not easy', 11월 30일(토) 밤 10시 3부 'Never give up', 12월 1일(일) 밤 11시 5분 4부 메이킹 'Remember me', 총 4부작으로 방송된다.

창사 29주년 기념 포상식 - '올해의 SBS팀' 대상은 교양D스튜디오

창사 29주년 기념 포상식이 11월 13일(수) SBS 목동 사옥 2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영예의 '올해의 SBS팀' 대상은 교양D스튜디오에 돌아갔다. 교양D스튜디오는 '애니멀봐', '우와한 비디오' 등 장르별 대표 채널을 성공시킨 데 이어, 적극적으로 신규 채널을 론칭해 SBS의 디지털 콘텐츠 영향력 확대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올해의 SBS팀' 우수상은 미디어사업팀, 예능1CP, 이슈취재팀, 미디어기술연구소가 받았다.

미디어사업팀은 유료방송사업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재송신료 문제를 해결하는 등 SBS 콘텐츠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했다.

예능1CP는 〈집사부일체〉,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의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SBS 예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만남의 광장〉 등 신규 프로그램 기획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슈취재팀은 다수의 단독 보도와 탐사·기획 보도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다양한 뉴스 포맷을 시도하여 SBS 보도의 위상을 높였다.

미디어기술연구소는 다국어 번역 기술과 자막 자동생성기술 개발 등 뉴미디어 채널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SBS 뉴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시청층 확대에 기여했다.

한편, 광고팀 김진철 차장, 유민종 차장대우는 디지털 광고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확장하여 SBS 수익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SBS인' 우수상을 받았다.

뉴미디어제작부 진송민 차장은 〈비디오머그〉가 신뢰와 재미를 모두 갖춘 콘텐츠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데이터저널리즘 〈마부작침〉을 통해 SBS 보도 이미지를 제고한 공로로 '올해의 SBS인' 우수상을 받았다.

뉴미디어제작부 진송민 | 광고팀 유민종 | 광고팀 김진철 | 미디어기술연구소장 김상진 | 사장 박정훈 | 교양D스튜디오팀장 박상욱 | 미디어사업팀장 한광섭 | 예능1CP 유윤재 | 이슈취재팀장 손승욱

SBS 창사 30주년 그래픽 모티프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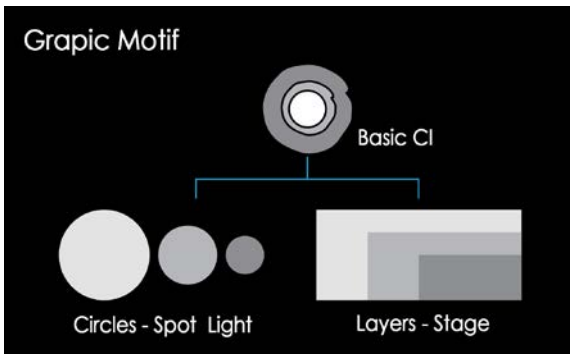
2020년 다이어리에 첫 선, 온에어/오프라인으로 확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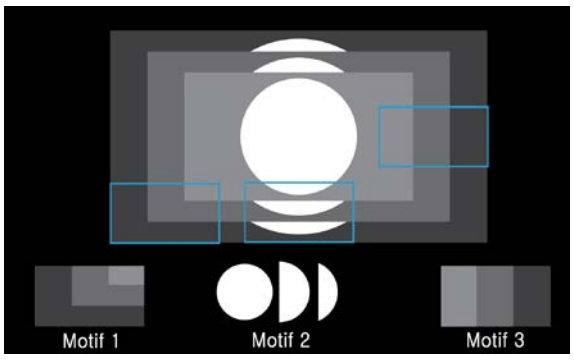
SBS는 2020년 창사 30주년을 맞아, 더 다채롭고, 더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브랜드로 인식되기 위해 이미지 리뉴얼 작업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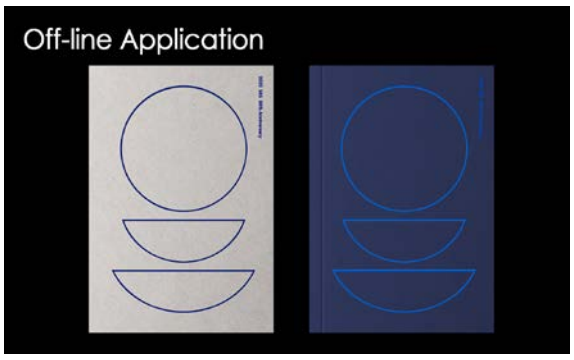
그 첫 단계로 SBS 고유의 브랜드 요소를 유지하면서 콘텐츠의 다양함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픽 모티프를 새롭게 개발하고 고유 색상을 확장하였다. 그래픽 모티프는 SBS 로고의 심벌인 '지혜의 눈'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 요소이다. SBS 로고의 고유 색상은 보도, 교양, 예능, 드라마 각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확장했다. 새 그래픽 모티브는 11월 11일(월) 전 사에 배포된 2020년 다이어리를 통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

브랜드 리브랜딩 작업을 이끌고 있는 편성팀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이지영 차장은 "다양한 콘텐츠에서 '기쁨을 찾다'를 표현하고자 그래픽 모티프인 사각형 레이어들과 동심원의 움직임의 조합으로 무대와 조명의 가상공간을 만들었고, 이들의 중첩된 움직임으로 모션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삶에서 판타지로의 통로이자 창조적 놀이 공간인 SBS TV 콘텐츠의 역할이었고, 앞으로의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연령 고지, '이어서', 방송 자막, 그리드, 서체 등의 온에어 프로모션 그래픽과 다이어리, 명함 등 오프라인 프로모션에 활용된다.







신입사원 17명 사령장

11월 18일(월) 17명의 신입사원이 사령장을 받았다.

사령장 수여식에서 박정훈 사장은 "합격 발표 이후 16일, 17일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주말이었을 것 같다"고 축하한 뒤, "방송 종사자가 일반 회사원과 다른 점은 다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남다른 업무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남들이 보지 않던 시선,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고 회사의 역사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신입사원은 여자 12명, 남자 5명으로 SBS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은 사흘간 입문 교육을 받은 후 21일(목) 소속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창사특집 2019 희망TV SBS> "아이가 아이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11월 22일(금), 23일(토) 양일간 15시간 20분 생방송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 전 세계 아이들이 아이다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온 SBS 대표 사회 공헌 프로그램 〈희망TV SBS〉가 11월 22일(금), 23일(토) 이틀간 생방송된다.

추사랑, 아프리카로 전학 가다?

폭풍 성장한 '추블리' 사랑이의 좌충우돌 아프리카 학교 생활기와 '흥'부자 야노시호가 케냐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사연까지, 추블리 모녀의 이야기가 〈희망TV SBS〉에서 펼쳐진다.

에릭남, 〈희망TV〉와 만나려고 가수됐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과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가수가 됐다는 에릭남. 에릭남과 〈희망TV〉가 만나 최고의 시너지가 폭발했다. 팬들과 함께한 특별 상영회 '에릭남 IN UGANDA'! 팬들의 웃음과 눈물이 공존한 현장을 〈희망TV SBS〉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이외에도 물로 인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케냐 사람들을 만나 상처를 보듬어준 배우 심혜진과 학교 대신 일터로 내몰린 잠비아의 아동 노동 현실에 가슴 아파하고 아이들을 위로해준 배우 이소연의 나눔 토크쇼도 〈희망TV SB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다큐 '윤서야! 우리 내일도 행복할 수 있을까?'

태어난 지 1년 만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6살 윤서, 뮤코지방증이라는 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윤서는 7살 겨울이 가장 큰 고비이다. 끝을 알지만 부모는 절망하는 대신 희망을 택했다. 하루하루 행복을 찾아 오늘을 사는 윤서네 가족의 이야기는 〈희망TV SBS〉 2부에 방송된다.

초특급 스타들의 '아이 안심 캠페인 송' 릴레이

실종 아동과 치매 노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상반기의 '아이 안심 캠페인'. 이번에는 김준현, 김병현, 정세운 등 핫한 스타들이 아이 안심 캠페인 송 바꿔 부르기에 도전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 위드 프로젝트'와 동아프리카 전역에 미디어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잔지바르 미디어센터'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희망학교에 노트북 기증

SBS는 유휴 업무용 노트북과 불용 IT 장비 등 총 158대의 사무기기를 아프리카 희망학교와 국내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했다.

11월 15일(금) SBS 목동 사옥 21층 경영본부장실에서 굿네이버스와 사회적 기업인 피플앤컴 관계자, SBS 이동희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IT 장비 기증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를 통해 SBS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 중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쓰지 않는 노트북 134대, 데스크톱 8대, 모니터 3대, 프린터 13대 등 총 158대의 IT 장비가 기증되었다.

이 장비들은 피플앤컴에 일괄 기증된 후, 수리 및 필수 소프트웨어 탑재를 거쳐 굿네이버스를 통해 아프리카 희망학교에 전달된다. 일부는 수리 후 국내 사회복지단체에 전달된다.

SBS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꾸준히 노트북 등을 아프리카 희망학교에 기증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팀장 이태헌 | SBS 경영본부장 이동희 | 피플앤컴 대표 이달성

창사 29주년 기념 공연 성료

SBS 창사 29주년 기념 공연이 11월 12일(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연은 '고전 시대 레퍼토리의 최고 해석자'라 불리는 거장 안드라스 쉬프가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의 지휘와 피아노를 맡아 큰 기대를 모았다. 쉬프는 그가 창단한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오케스트라와 완벽한 호흡을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또한 관객들의 호응에 보답하며 앙코르곡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5번의 하이라이트를 연주, 공연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사진제공 = Priska-Ketterer)

SBS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올해도 사우 초청을 진행했다. 총 112명이 응모한 가운데 박정훈 사장이 직접 20명을 추첨했다. 공연을 관람한 사우들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연주였다"며 공연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사우 기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 시사교양본부 교양3CP 소속 권도엽

최근 일본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를 봤습니다. 영화는 스토리를 다 보여주고 나서야 영화의 진짜 본편이라 할 수 있는 스토리 제작 메이킹을 보여줍니다. 생방송 사고를 막기 위해 카메라를 멈추지 않으려고 애쓰는 영화 속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왠지 모를 위안도 받았습니다. 카메라 뒤에도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2018년 10월 인턴으로 처음 들어간 팀은 〈궁금한 이야기 Y〉였습니다. 연출, 조연출 선배와 같이 취재를 따라나섰습니다. 할 줄 아는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전까지 카메라를 한 번도 작동시켜 본 적 없는 저에게 연출 선배가 핸디캠 하나를 쥐여 줬습니다. 아무렇게나 찍어보라고. REC. 빨간색 원이 그려진 작은 버튼이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건지. 그 작은 카메라를 수도 없이 켰다가 껐다가. 혼자만의 싸움을 했습니다. 영화와 다르게 저는 카메라를 자꾸 멈췄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짧은 인턴 기간을 거치고 일 년 만에 〈궁금한 이야기 Y〉로 돌아왔습니다. 모 선배가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카메라를 멈추지 말고 계속 돌리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멈추지 말자고 다짐한 결과, 일 년 전처럼 난리는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화만 됐지 결코 쓸 만한 결과물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카메라를 멈추지 않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시작되려면 어쨌든 카메라는 멈추지 말고 돌아야 하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카메라를 계속 돌리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매번 더 즐겁게 카메라 뒤에 서 있고 싶은 바람입니다.